

‘2026년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에 콜롬비아·네덜란드·나이지리아 3개 단체 수상

- 9. 8. ‘세계 문해의 날’ 기념해 멕시코 산후안차물라에서 시상식 개최
- 72개국에서 총 132건 접수, 전년보다 35건 늘며 국제적 관심 높아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하 문체부)는 ‘세계 문해의 날’을 기념해 9월 8일(멕시코 현지 시각) 산후안차물라에서 열린 ‘2026년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식에서 ▲콜롬비아의 ‘비블로레드(BibloRed)’, ▲네덜란드의 ‘문화 간 다언어 교육을 위한 루투 재단(Rutu Foundation for Intercultural Multilingual Education)’, ▲나이지리아의 ‘와에르 워터스 자선 재단(Waer Waters Charity Foundation)’ 등 세 단체가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의 문맹 퇴치 노력에 동참하고자 1989년에 제정된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각 수상 단체에 수여하는 상금을 기존 2만 미국 달러에서 3만 미국 달러로 인상해 수상의 영예를 높이고, 세계문해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포용적·다언어 교육, 모어 존중 등 문해 교육의 새로운 방향 제시

‘사람, 지구, 번영을 위한 문해력(Literacy for People, the Planet, and Prosperity)’을 주제로 진행한 올해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공모에서는 전년 대비 35건이 증가한 72개국 총 132건을 접수해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국제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 단체들은 문해 교육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수상 단체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 ‘비블로레드’는 보고타 공공도서관 연계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에스쿠엘라스레오(Escuelas LEO)’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의 다언어 문해교육과 모어의 보존 및 활성화를 지원했다. 특히 농인 학습자를 위한 스페인어 교육과 문화 간 대화를 통해 공동체 정체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루투 재단’의 ‘언어친화적 학교(Language Friendly School)’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다양한 모어를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닌 중요한 학습자원으로 인정하는 다언어·포용적 교육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언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힘썼다. ▲나이지리아 ‘와에르 워터스 자선 재단’은 ‘기초 문해력 가속화 프로젝트(Project PAL)’를 통해 태양광 기반 문해 허브(Literacy Hubs)라는 안전한 학습 공간을 제공했다. 이그보어, 이자우어 등 토착어 기반의 교육으로 학습자 역량에 맞춘 수준별 학습을 지원해 소외 아동의 기초 문해력을 높이고 정규 교육 복귀를 도와 지역사회의 주도성을 강화했다.

문체부 명수현 문화정책관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담긴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이 전 세계 문해력 증진에 기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개요

따로 붙임 ‘2026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식’ 사진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은희 (044-203-2531)
		담당자	주무관	홍주원 (044-203-2540)



□ 개 요

-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은 한국 정부 지원으로 1989년에 제정돼 1990년부터 시상
- 문자를 쉽게 익히고 사용하도록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들의 문자해독능력, 즉 문해율을 크게 개선한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정신을 널리 알리고,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세계 문해사업 및 문맹 퇴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세종대왕 문해상 제정
- 문해, 특히 개발도상국 모어 발전·보급에 크게 기여한 개인/단체 중, 3명(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세계문해의 날(9월 8일) 시상식 개최

□ 후보 추천 및 수상자 선정

- 수상 대상: 문맹퇴치사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동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사 업무 등에 기여한 자, 문맹퇴치관련 학술연구에 업적을 남긴 자, 문맹퇴치에 공이 있는 언론 등
 - * 매년 진행되는 세계문해의날 행사 주제를 반영하여 심사 진행(예시: 2025년 Promoting literacy in the digital era) ⇒ **2026년 세계문해의날 주제 “Literacy for people, the planet and prosperity”**
- 후보 추천: 유네스코 회원국 또는 유네스코와 공식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 등이 추천
- 수상자 선정: 수상자는 국제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정
- 국제심사위원회: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세계 각 지역별로 안배해 임명한 문해 분야 남녀 저명인사로 구성(5인)
- 상금 및 부상: 각 수상자에게 상금 미화 3만 달러*과 상장 수여
 - * 2026년부터 상금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액